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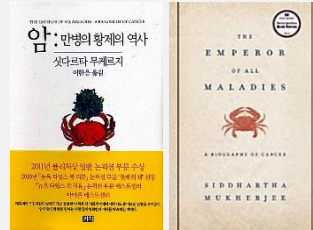


RECOMMENDED BY PROFESSOR
ANTON GARTNER & JAE-ICK KIM IN SCHOOL OF LIFE SCIENCES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

The Emperor of All Maladies
: A Biography of Cancer

싯다르타 무케르지 Siddhartha Mukherjee



Professor's Comment

A truly facinating book about the cancer therapy and how this was developed.
A easy to read booh for students interested in the area of cancer research and medicine.

5,000년 넘게 인간과 함께 존재해온 암과 그 암의 정복을 위해서 싸워온 모든 인간들의 역사. 종양학자이자 의사로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암과 암에 걸린 환자들을 지켜본 싯다르타 무케르지의 첫 번째 저작이다. 미국에서 발간 즉시 수많은 화제를 낳았으며, 언론의 대대적인 찬사를 받았다. 또한 「뉴욕 타임스 북 리뷰」와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11년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RECOMMENDED BY PROFESSOR
ANTON GARTNER IN SCHOOL OF LIFE SCIENCES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

The Gene: An Intimate History

싯다르타 무케르지 Siddhartha Mukherjee



Professor's Comment

Key concepts and experiments that lead to the revolution in modern molecular biology.

우리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우리는 왜 형제와 닮았으면서도 다를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유전자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력한 유전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의사이자 이 책의 저자인 싯다르타 무케르지는 유전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다.

저자의 삼촌들과 사촌이 조현병 환자로, 본인들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가 고통을 받아왔다. 자신의 유년기를 잠식해온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저자는 정면으로 대응한다. 바로 자신의 집안의 내밀한 비밀에 대해서 고백하며, 유전자의 정체와 그 연구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유전자 연구에 대해서 등 거의 모든 유전자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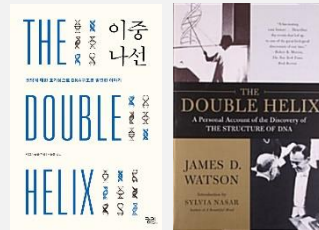
RECOMMENDED BY PROFESSOR
ANTON GARTNER IN SCHOOL OF LIFE SCIENCES

이중나선

생명에 대한 호기심으로 DNA 구조를 발견한 이야기

The Double Helix: A Personal Account of the Discovery of the Structure of DNA

제임스 왓슨 Watson, James D.



Professor's Comment

About the dsicovery of the DNA double helix.

DNA 나선구조를 밝힌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 제임스 왓슨이 소설의 형식을 빌어 그의 연구과정을 밝힌 책이다. 딱딱한 과학 지식과 말랑말랑한 과학자들의 일상이 조화를 이뤄 공동연구자 프랜시스 크릭을 만나 DNA 연구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낸 현대 과학의 고전이다.



RECOMMENDED BY PROFESSOR
ANTON GARTNER IN SCHOOL OF LIFE SCIENCES

노벨상 수상자 막스 페루츠의 과학 에세이 1, 2권

I Wish I'd Made You Angry Earlier

막스 페루츠 Max F. Perutz



Professor's Comment

These are autobiographical notes from Max Perutz. He was interned as Alien refugee at the beginning of World War II having survived the Holocaust by having left Austria in 1936. He won the Nobel Price for protein structure and established a small institute in Cambridge, the Laboratory for Molecular Biology, which produced no less than 17 Nobel laureates.

막스 페루츠는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의 분자 구조를 밝힌 연구로 1962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과학자이다. 정상급 연구자였던 그는 대중들을 위한 글을 쓰는 것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노벨상을 받은 이후 사망하기까지 40여년간 수많은 서평과 에세이를 여러 지면에 발표했으며 강연도 수없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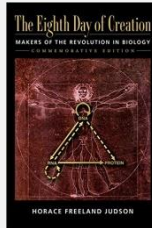


RECOMMENDED BY PROFESSOR
ANTON GARTNER IN SCHOOL OF LIFE SCIENCES

Eight Day of Creation

Makers of the Revolution in Biology

Horace Freeland Judson



Professor's Comment

A truly fascinating book about the history of molecular biology, key experiments, key concepts, key personalities. A must read for every first years students contemplating a career in molecular biology.

In this classic book, the distinguished science writer Horace Freeland Judson tells the story of the birth and early development of molecular biology in the US, the UK, and France. The fascinating story of the golden period from the revelation of the double helix of DNA to the cracking of the genetic code and first glimpses of gene regulation is told largely in the words of the main players, all of whom Judson interviewed extensively. The result is a book widely regarded as the best history of recent biological science yet publi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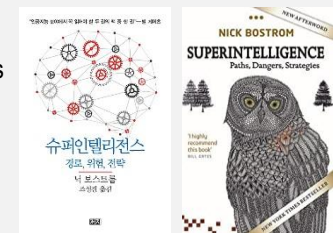


RECOMMENDED BY PROFESSOR
TSZ-CHIU AU IN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슈퍼 인텔리전스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닉 보스트롬 Nick Bostrom



2014년 출간 이후 '뉴욕 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반드시 읽어야 할 두 권의 책 중에서 한 권"으로 강력하게 추천한 이 책은 영미권에서만 13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19개 언어의 번역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닉 보스트롬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이며, 이 대학의 인류 미래 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인공지능이 발전하여 인간의 능력을 훨씬 더 증가하는 슈퍼인텔리전스(초지능)의 개발 과정에서 인류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점들을 이 책에서 제기한다.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초지능을 개발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탁월하게 전망한다.



RECOMMENDED BY PROFESSOR
KIM, JAE-ICK IN SCHOOL OF LIFE SCIENCES

한국의 연쇄살인

희대의 살인마에 대한 범죄 수사과 심리 분석
표창원



한국 사회를 뒤흔든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과정과 연쇄살인범의 심리 분석을 담은 책이다.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경종을 울리며, '연쇄살인범들은 누구이며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가'를 조명한다.

피해자의 실명까지 표기해가며 공론화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외국에 비해 감추고, 피하고, 잊어버리려는 데 급급한 사회 현실 속에서, 책이 담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한국 연쇄살인범들의 성향 등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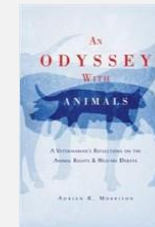


RECOMMENDED BY PROFESSOR
KIM, JAE-ICK IN SCHOOL OF LIFE SCIENCES

An Odyssey with Animals

A Veterinarian's Reflections on the Animal Rights & Welfare Debate

Adrian R. Morris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ls and humans is more complex today than ever before. In addition to the animals that have served as household pets, and the farm animals that have provided labor and food, countless monkeys, rabbits, rats, and cats have enabled modern scientists to treat and cure humanity's most devastating illnesses. This aspect of animal-human interaction has engendered a bitter enmity between animal rights activists and the biomedical researchers whose work depends on the use (and oftentimes the killing) of laboratory animals.



RECOMMENDED BY PROFESSOR
KIM, JAE-ICK IN SCHOOL OF LIFE SCIENCES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Bright Air, Brilliant Fire

제럴드 에델만, Gerald Edelman



의식과 사고가 어떻게 인간 뇌에서 진화하고 있는 가를 알려주는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이 책은 세계적인 신경생물학자인 저자가 인간의 두뇌에 대하여 설명한 전문서로 의식과 사고가 인간 뇌의 진화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가의 탐구를 통해 마음이 신경진화의 산물임을, 신경세포로부터 의식 있는 마음에 이르는 통로임을 입증하고 있다.

놀라운 가설

Astonishing Hypothesis: The Scientific Search for the Soul

프랜시스 크릭, Francis Crick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프랜시스 크릭의 역저. 정신현상의 모든 특성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 책은 '시각을 통한 인식'이라는 한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의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서막을 열고 있다. 그동안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에서만 언급되던 의식, 정신, 영혼의 문제가 실험을 통한 과학적 접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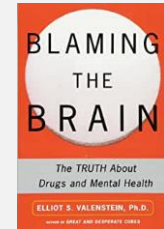


RECOMMENDED BY PROFESSOR
KIM, JAE-ICK IN SCHOOL OF LIFE SCIENCES

Blaming the Brain

The Truth About Drugs and Mental Health

Elliot Valenstein



Over the last thirty years, there has been a radical shift in thinking about the causes of mental illness. The psychiatric establishment and the health care industry have shifted 180 degrees from blaming mother to blaming the brain as the source of mental disorders. Whereas experience and environment were long viewed as the root causes of most emotional problems, now it is common to believe that mental disturbances -- from depression and anxiety to schizophrenia -- are determined by brain chemistry. And many people have come to accept the broader notion that their very personalities are determined by brain chemistry as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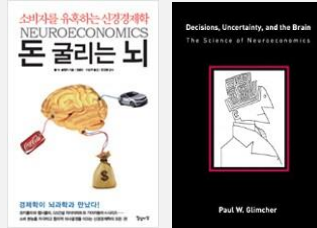


RECOMMENDED BY PROFESSOR
KIM, JAE-ICK IN SCHOOL OF LIFE SCIENCES

돈 굴리는 뇌

Decisions, Uncertainty, and the Brain:
The Science of Neuroeconomics

폴 글림처, Paul Glimcher



이 책은 세계 최고 신경경제학회인 신경경제학사회의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뉴욕대학 신경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인 폴 W. 글림처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쓴 신경경제학 입문서이다.

선천적으로 인간의 두뇌는 단순한 패턴을 인지해 판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 시장에서는 패턴이 통하지 않는다. 금융 시장에서는 투자를 아무리 신중히 한다 해도 예상치 않은 변수들이 개입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확실한 금융 시장에서 패턴을 찾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종종 손해를 보고 마는 것이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접목시킨 이 책은 뇌과학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이 융합하는 통섭의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신경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이해하고, 폭넓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RECOMMENDED BY PROFESSOR
KIM, JAE-ICK IN SCHOOL OF LIFE SCIENCES

사다리 걷어차기

Kicking Away the Ladder:
Development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장하준, Ha-Joon Chang



2003년 1년간 출간된 경제학 도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저작에 수여되는 뮌헨상을 수상한 책. 2003년 영국에서 발간된 이래 터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7개 국어로 출간될 만큼 화제를 낳고 있는 책이다.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를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논증했다.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 준다.



RECOMMENDED BY PROFESSOR
KIM, JAE-ICK IN SCHOOL OF LIFE SCIENCES

생각하는 뇌, 생각하는 기계

On Intelligence

샌드라 블레이크슬리, 제프 호킨스
Jeff Hawkins, Sandra Blakeslee



컴퓨터가 지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을 토대로 삼아 어떻게 하면 지적 기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인간의 지능을 모사하려는 기존의 시도들-인공 지능과 신경망-은 여태껏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호킨스는 그런 시도들이 지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채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Nausicaa of the Valley of the Wind

미야자키 하야오, Hayao Miyazaki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가 직접 그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원작만화이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음울한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신비한 카리스마의 소녀 나우시카의 활약상이 보여진다.



RECOMMENDED BY PROFESSOR
JOO, JEONG HWAN IN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숫자로 경영하라 1~4

최종학



홍콩과학기술대학에서 6년 연속 최고강의상을 수상하고, 서울대학교 최초로 우수연구상과 우수강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회계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최종학 교수가 경영자들이 숫자하는 도구로 큰 그림을 보고, 이를 이해해서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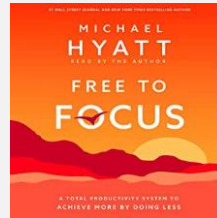
RECOMMENDED BY PROFESSOR

YOON, EISUNG IN SCHOOL OF MECHANICAL, AEROSPACE AND NUCLEAR ENG.

Free to Focus

A Total Productivity System to Achieve More by Doing Less

Michael Hyatt



The revolutionary productivity system trusted by more than 25,000 professionals. Get more done and get your life back. Many professionals work as many as 70 hours a week, leaving little time for rest, exercise, family, and friends. Work is invading their personal life. The common understanding of productivity has failed these professionals. Most think productivity is just about getting more done at a faster speed. But it's not. Productivity is about getting the right things d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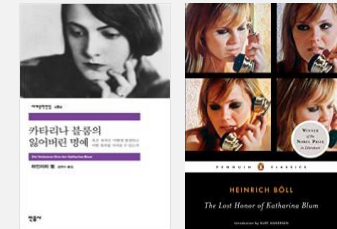
RECOMMENDED BY PROFESSOR

LEE, JAESEON IN SCHOOL OF MECHANICAL, AEROSPACE AND NUCLEAR ENG.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The Lost Honor of Katharina Blum

하인리히 뵐, Heinrich Böll



197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하인리히 뵐의 소설. 황색 언론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한 한 개인의 명예에 관한 보고서이다. 뉴저먼시네마의 기수 폴커 슐렌도르프에 의해 영화화되기도 했다. 소설은 소박한 카타리나 블룸이 어쩌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는지 조사하며 닷새간 그녀의 행적을 재구성하여 이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